

()반 ()번 이름 : ()

'돈', 너 도대체 Money?

season.1

☞ 메뉴판 : 셰프가 소개하는 오늘의 메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돈'이죠.
 그런데 이 '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돈은 그냥 많이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잘 살기 위해서니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4차시에 걸쳐 '돈'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취기준

[9도01-04] 본래적 가치에 근거한 삶의 목적 추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도덕 공부를 통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도덕적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다.

▶오늘의 목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 잘쓰는 법을 탐구할 수 있다.

☞ 에피타이저 : [tvn] 유퀴즈 온더 블럭



유퀴즈 온더 블럭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 이삭토스트 회장님이 출연했다. 회장님은 프랜차이즈를 낼 때 흔히 받는 '가맹비'를 받지 않고 가게를 내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자신을 '가이드'라 칭한다. 물론 돈은 벌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하면 그다지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래도 회장님은 늘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

1. 회장님이 가맹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아이러니하게도, 방송이 나간 후 배달의 민족 어플의 1위는 '이삭토스트'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어요
02.24 22:00 기준

1 이삭토스트 ▲

2 bhc ▲

3 토스트 ▲

3. 여러분들은 ① 죽을 때까지 돈이 넘쳐나지만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잔병치레(변비, 비염, 만성 장염 등)가 많은 사람 vs ② 죽을 때까지 의식주만 해결할 정도의 돈만 벌지만 마음은 항상 평화롭고 건강한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 이유와 함께 적어봅시다.

🍷 메인디쉬 : 돈 잘쓰는 법 (feat.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1. 다음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에 밑줄 쳐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따르면 ‘중용’이란 최고선에 이르는 인간의 도덕적인 성향을 다른 성향과 구별하게 해주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중용’의 의미는 강한 것과 약한 것을 피해 중간에 위치할 자리를 찾아내는 일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략]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를 가장 먼저 논한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관련된 것이다. 두려움이 지나치면 비겁이 되고, 너무 없으면 만용이 된다. 둘 다 악덕이고, 두려움이 그 중간에 위치하도록 조절해야 ‘용기’가 성립되는 것이다.

2. 다음의 사례가 ‘지나친 행위’라고 생각하면 ‘오바’, ‘능력에 비해 부족한 행위’라고 생각하면 ‘부족’,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중용’이라고 기록한 뒤 발표해 봅시다.

사례 예시	나의 생각	이유
1. 재벌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 만원을 내며 아까워 한다.		
2. 가족들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 만원을 낸다.		
3. 1년에 17억을 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방송 촬영 업그레이드를 위해 3억을 투자한다.		
4. 수익이 전혀 없는 신생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방송 촬영 업그레이드를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 3억을 투자한다.		
5. 한 달에 150만원을 버는 편의점 알바 대학생이 한 달에 20만원씩 저축하여 1년 뒤 적금을 들어 240 만원 짜리 명품을 구입한다.		

<뒷장에 계속>

()반 ()번 이름 : ()

‘돈’, 너 도대체 Money?

season.1

6. 10억대의 자산가가 화장실 내리는 물을 아끼기 위해 용변을 반드시 다른 장소(관리 사무소 등)에서 본다.

7.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은행 대출을 내어 1억을 유니세프에 송금하였다.

8. 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친구나 동료들에게 자신의 밥값과 커피값을 내게 한다.

9. 한 달에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출퇴근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1시간 거리를 걸어 다닌다.(하루 2시간 걸음)

3.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은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분노표현의 문제,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의 문제 등 인생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행위를 찾아야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행위들에 대해서도 ‘중용’의 태도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상황	해당 상황에서 중용의 태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본다면?	
119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119에 신고한다면?	
으스스한 골목에서 누군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중학생은?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흥겹게 놀고 있는데 어울리지 않고 그 안에서 홀로 수학 문제를 푼다면?	
컨닝을 한 것이 적발된 뒤 교무실에 와서 킁킁거리며 웃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것은?	

🍷 **음료수 한잔 : 이삭토스트 사태로 본 ‘브랜딩’ - 출처 : 김종섭의 광고 이야기**

마케팅을 안 해도 되는 브랜드가 있다.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브랜드가 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뽕튀기 집인데 간판도 작고 복잡한 골목 안에 있다. 마치 미로 찾기 하는 식으로 찾아야 된다. 그럼에도 늘 만석이다. 도무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안 보인다. 이 뽕튀기 집의 성공 이유는 비단 맛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맛, 사람, 풍경, 공기, 손가락, 젓가락, 테이블, 티슈 등 이 브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의 결과이다. 맛은 기본이요, 그 외에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경험하는 모든 것의 결과물이 사람들을 열광케 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브랜딩이라 부른다. 하지만 많은 창업가들이 브랜딩을 포기한다. 마케팅에는 목숨을 걸면서 브랜딩의 중요성은 외면한다. 마케팅은 매출이라는 지표로 보이지만 브랜딩은 숫자로만 평가하기엔 너무 힘든 영역이기 때문이다. 브랜딩은 고객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일이다. 그것을 정량화하는 작업은 무척 힘들다. (이것 역시 정량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 이삭토스트의 사례가 매우 흥미롭다. 솔직히 이삭토스트의 광고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가 무척 감동이었다. 가맹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 인테리어를 강요해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삭토스트의 브랜딩이 되어 버렸다. 어떠한 마케팅 전략도 이길 수 없는 최고의 브랜딩이 되어버렸다. 이삭토스트 사장님은 재무제표상의 숫자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더 멀리보고 더 올바른 브랜드가 되는 노력을 하다 보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어 버렸다. 광고 회사는 이런 브랜드가 가장 두렵고 무섭다. 아무리 기획서에 컨셉, 경쟁자 분석, 마케팅 전략을 써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리더의 눈을 통해 비로소 탄생한다. 인내심이 가득한 눈으로 브랜드를 바라보라.

🍷 **맛집 리뷰 : 느낀점 및 소감**

오늘 수업은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오늘 철학 서적의 한 부분을 엿본거나 다름없습니다. 수업 내용의 10분의 1만 가져가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교양 한스푼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을 통해 어떤 점을 알게 되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은 어땠는지 자기 평가도 해봅시다. 10줄 이상 써주세요! 여러분들 평가에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수업 제목	오늘의 활동 내용	나의 학습 활동 평가 및 소감				
		1	2	3	4	5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반 ()번 이름 : ()

‘돈’, 너 도대체 Money? season.1

☞ 메인디쉬 : 무인도의 6명에게 식량 분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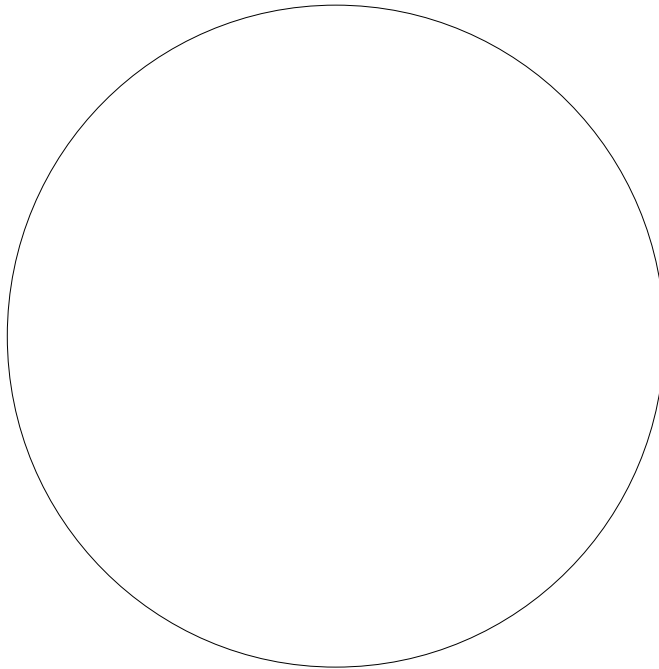
‘돈’ 문제는 곧 ‘분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한 방식일까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왜 가난할까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활동1] 다음의 상황에서 식량을 공정하게 분배해봅시다.

-상황-

비행기가 난기류로 인해 불시착하게 되었다. 생존자는 화면에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일주일 치의 식량. 무인도에 마땅한 식량 자원은 없다. 식량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할까?
고려할 점 (1) 구조대는 언제 올지 모름. (2) 생존하여 구조되는 것이 목표임.

[나의 생각]



위와 같이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돈’, 너 도대체 Money? season.1

인물	25세 남성	25세 여성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85세 노인	5세 어린이	46세 말기암 환자(시한부 6개월)
분배 개수						
이유						